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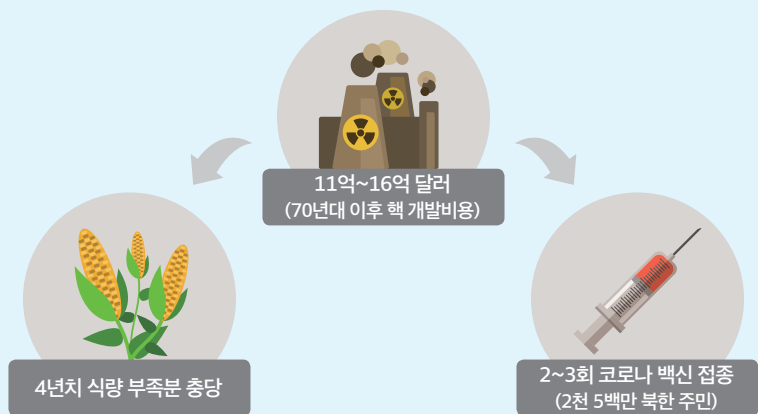
# 북한 경제·사회 실태 인식보고서

탈북민 6,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



## 핵·미사일에 대한 과다지출로 민생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북한

- 2017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한층 강화된 이후, 북한경제는 장기적인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
-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경제난과 식량위기는 도외시한 채, 그나마 가용한 재원을 핵·미사일 개발에 소진하고 있습니다.



\* 출처: 한국국방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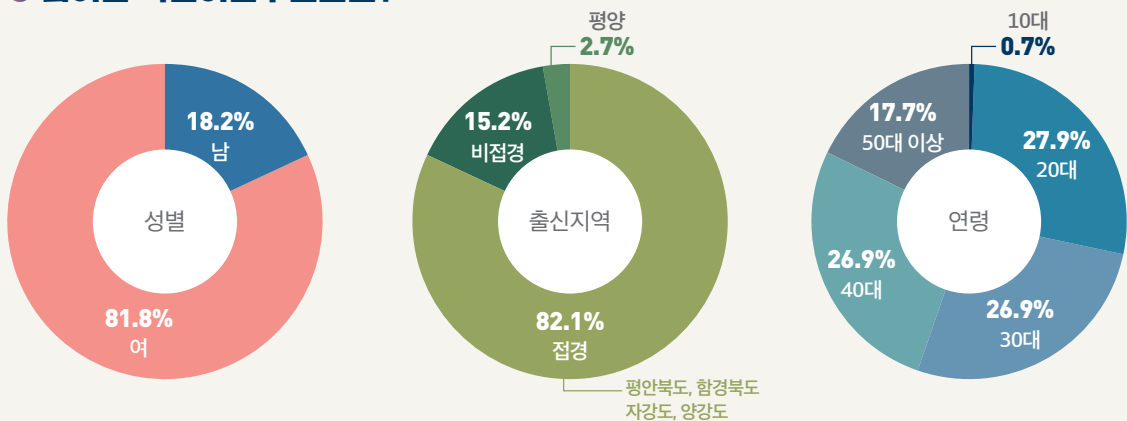
- 만약 북한 정권이 핵·미사일 개발에 쏟아 부은 재원을 주민들의 민생에 썼더라면, 북한 경제는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.
-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난과 민생난의 원인은 다름 아닌 북한 정권의 왜곡된 정책과 경제지출입니다.
- 통일부는 『북한 경제·사회 실태 인식보고서』를 통해 북한 당국이 감추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생생한 민생 현실과 변화상을 객관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.

# Introduction

## 『북한 경제·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- 탈북민 6,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』을 소개합니다.



### ●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은?



### Contents

#### 북한 정권의 실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. 배급제의 붕괴, 무임금 '충성'페이       | 04 |
| 2. 멈춰선 기업소                   | 05 |
| 3. 늘어난 곡물생산량은 농민이 아닌 당국과 군으로 | 05 |
| 4. 신뢰를 잃은 북한 화폐, 환영받는 외화     | 06 |
| 5. 간부의 수탈, 뇌물의 성행            | 07 |
| 6. 빈부격차, 더 심각한 평양-지방 격차      | 08 |
| 7. 우상화에 함몰된 교육               | 10 |
| 8. 일상화된 사회 통제                | 11 |

#### 계획경제와 통제의 틈새에서 시장으로 향하는 주민들
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. '내돈내산' 생필품          | 12 |
| 2. 병원 대신 종합시장으로 가는 환자들 | 13 |
| 3. 전기도 난방도 '자력갱생'      | 14 |
| 4. '써비차'와 '사적 고용' 확대   | 15 |
| 5. 법망 피해 '내 집 마련'      | 16 |
| 6. 장마당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들  | 17 |

#### 더디지만, 그래도 변화하는 주민들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. 국영경제에서 사경제로                   | 18 |
| 2. '3대 세습', '백두혈통' 세습에 대한 차가운 시선 | 20 |
| 3. 일상에서 나타난 의식 변화들               | 21 |
| 4. 거센 단속 속에서도 꾸준히 유통되는 외부정보의 힘   | 22 |

# 북한 정권의 실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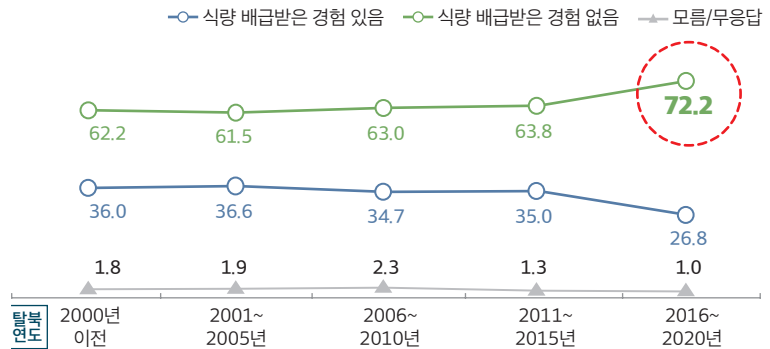
①

## 배급제의 붕괴, 무임금 '충성'페이

**식량 배급 '경험 없음' 72.2%,  
공식 직장 노임·식량배급 '모두 없음' 50.3%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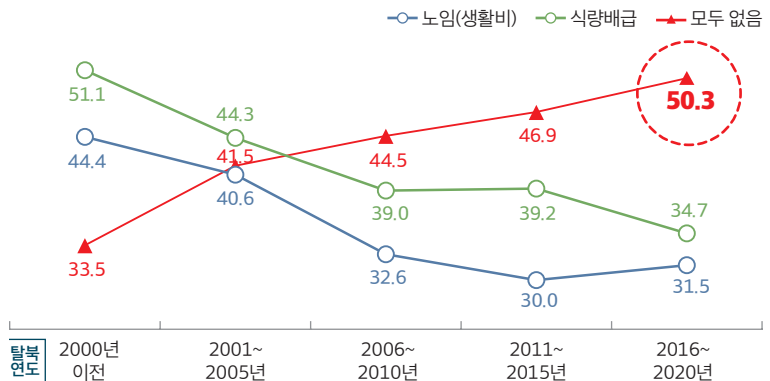
- 당국으로부터 식량 배급을 받았다는 주민들이 줄어들었으며, 특히, 김정은 집권 이후 더욱 감소하면서 주민들의 식량 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.

### • 식량배급 경험 비율의 연도별 추이(%)



- 식량 배급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(72.2%)으로 나타났습니다.

### • 직장의 식량배급 및 노임 지급 여부(%, 복수응답)



- 한편, 공식 직장에서도 노임과 식량 배급 어떠한 것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50.3%까지 증가하였습니다.
- 북한의 공식 직장에서는 제대로 된 임금 지급 없이 열정과 충성심만 강조하며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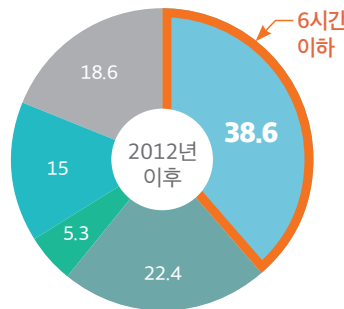
## ②

### 멈춰선 기업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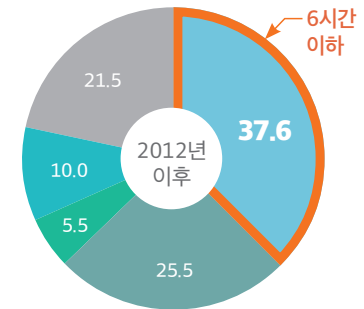
#### 기업소 실제 가동시간 '6시간 이하' 37.6%

- 북한의 기업소(공장)는 전력이나 원자재 등 생산에 필요한 제반 조건들이 원활하게 보장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- 조사 결과에 따르면,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전력 공급시간과 실제 가동 시간이 하루 6시간에도 미치지 못한 기업소의 비중이 1/3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

• 기업소 1일 전력 공급시간 분포(%)



• 기업소 1일 실제 가동시간 분포(%)



■ 1~6시간 ■ 7~12시간 ■ 13~23시간 ■ 24시간 ■ 모름/무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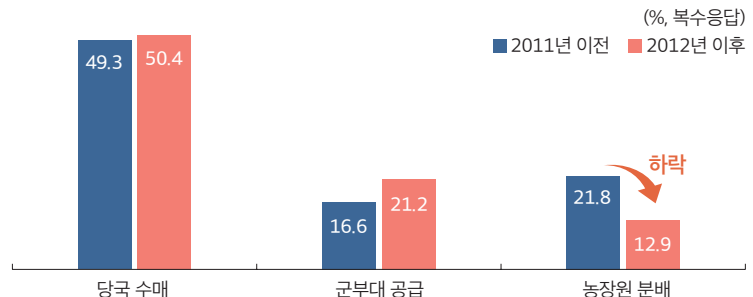
\* 실제 가동시간은 기업소가 자체적으로 전력 공급하는 시간을 포함

## ③

### 늘어난 곡물생산량은 농민이 아닌 당국과 군으로

#### 농장 생산물 → '당국 구매' 50.4%, '군부대 공급' 21.2%, '농장원 분배'는 12.9%에 불과

- 김정은 집권 이후, 생산된 농산물의 70% 이상이 당국과 군부대에 귀속되는 반면, 농장원 분배 비율은 21.8% → 12.9%로 하락하였습니다.



(%, 복수응답)

■ 2011년 이전 ■ 2012년 이후

## ④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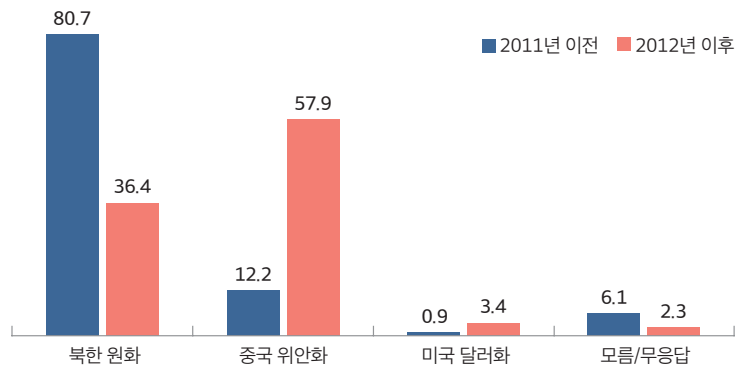
### 신뢰를 잃은 북한 화폐, 환영받는 외화

#### 김정은 집권 이후 위안화 통용 약 5배 증가

- 북한에서 달러화·위안화 등 외화는 주민들의 일상 경제활동에 주요한 거래 매개이자 가치저장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- 북한 당국의 화폐 개혁\* 실패 이후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외화 통용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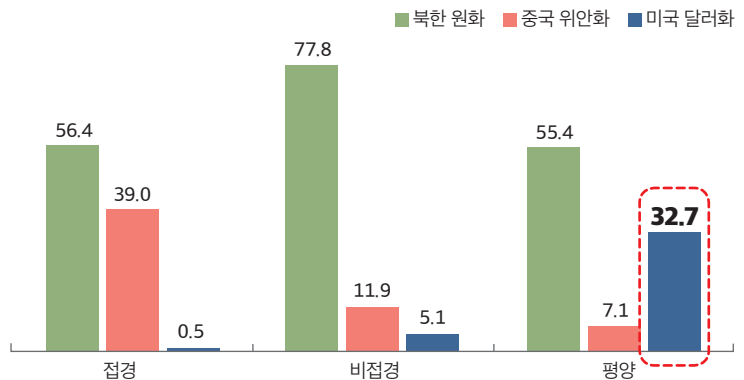
\* 2009.11월, 북한은 북한 내 ▲인플레이션 압력 감소 ▲시장 확산에 대한 통제 강화 ▲재정능력 확보의 목적으로 구권과 신권을 100:1의 교환비율로 바꾸는 화폐 개혁 실시

#### • 1순위 시장 거래 화폐(%)



- 위안화를 주로 사용하는 접경·비접경 지역에 비해 평양에서는 상대적으로 달러화 사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#### • 1순위 지역별 시장 거래 화폐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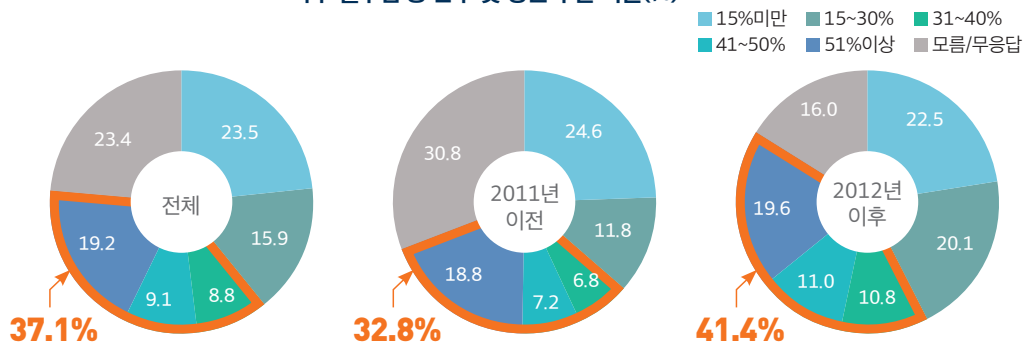
## 5

### 간부의 수탈, 뇌물의 성행

#### 월수입의 30% 이상 수탈 41.4%

- 북한에서 권력층에 의한 수탈이 만연하여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
- 월소득의 30% 이상을 수탈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37.1%로 나타났으며, 그 정도는 김정은의 집권 이후 41.4%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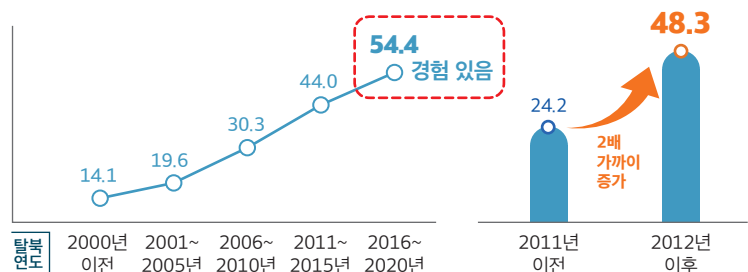
#### • 가구 월수입 중 간부 및 정권 수탈 비율(%)



#### 김정은 집권 이후 뇌물 2배 가까이 증가

- 북한 사회에서 장사·교육·입당·처벌회피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뇌물 관행이 자리 잡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- 지난 20년간 뇌물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, 2016~2020년 기간에는 응답률이 54.4%에 달했습니다.

#### • 뇌물 공여 경험 유무(%)



## 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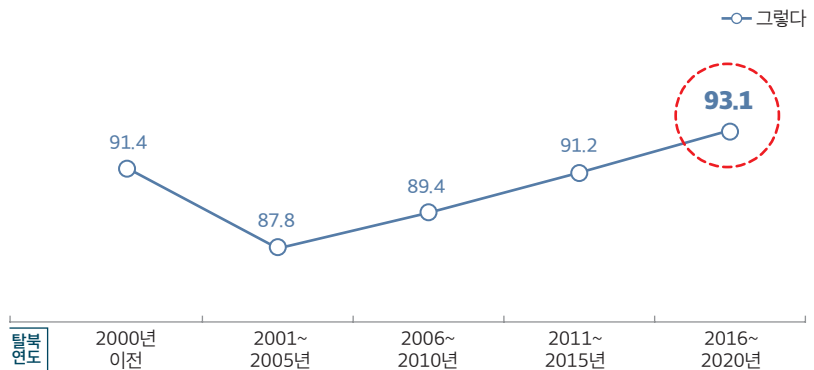
### 빈부격차, 더 심각한 평양-지방 격차

#### 93.1% 빈부격차 심화 평가

-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북한 사회의 빈부격차가 커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
- 사경제 활동을 통해 부(富)를 축적한 '돈주\*' 등 일부 상위 계층의 등장과 함께 당·정·군 간부층도 권력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는 등 북한 내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.

\* 돈주 : 1990년대 '고난의 행군' 시기를 거치며 시장 활동을 통해 등장한 북한 내 신흥 부유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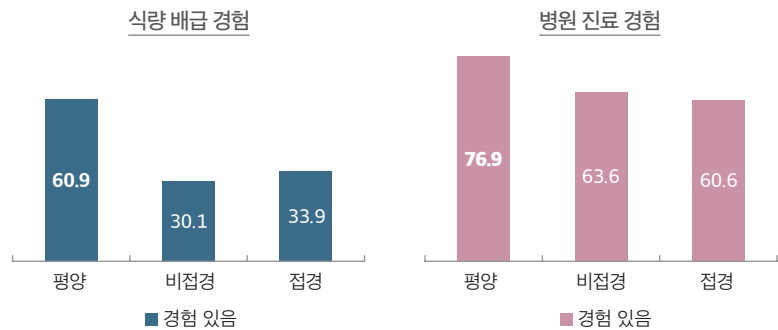
#### • 북한 빈부격차 심화 평가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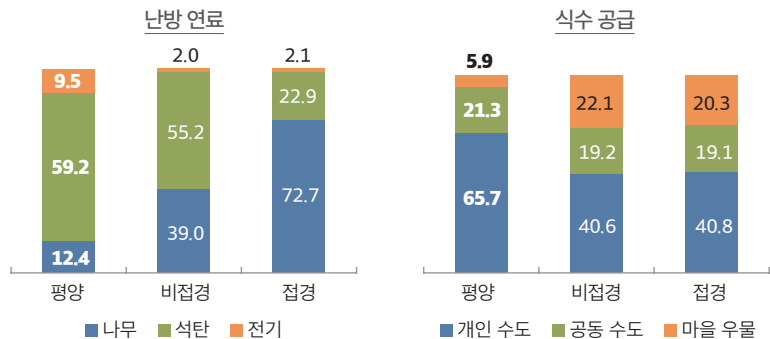
- 최근 응답자들의 93.1%가 북한의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고 평가, 김정은 집권 이전인 89.4%보다 더욱 상승했습니다.

## 평양-지방 간 공공서비스 공급 격차

- 분야별로 평양-지방 간 공공서비스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.  
접경·비접경 지역은 평양에 비해 식량 배급, 병원 진료, 난방 연료, 개인 수도 등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 공급 측면에서 훨씬 더 열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.



- 접경·비접경 지역 주민들의 식량 배급 경험은 평양 지역 거주민들의 배급 경험의 반절에 불과하였으며, 병원 진료 경험 비율도 더 낮게 조사되었습니다.



- 평양의 경우 석탄·전기 난방 연료 사용 비율과 개인 수도 비율이 높은 반면, 접경지역에서는 나무 연료로 난방을 하는 비율이 72.7%에 이르고 마을 우물 사용 비율이 20%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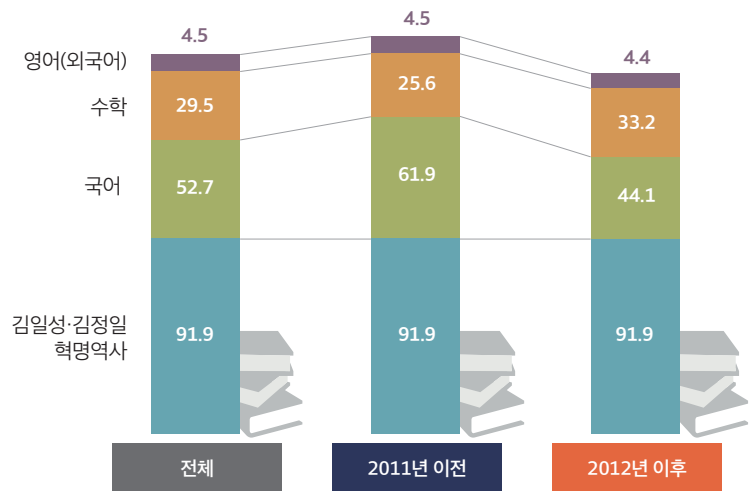
# 7

## 우상화에 함몰된 교육

### 가장 중요한 과목 1위 김일성·김정일 혁명역사 91.9%

- 북한 당국은 지식경제시대에 맞는 새 세기 교육혁명을 강조하고 있으나 여전히 김일성·김정일 혁명역사 등 우상화 교육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####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던 과목(1,2순위 복수응답 종합빈도, %)



-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예체능을 비롯한 대학 입학에 유리한 과목을 사교육에 의지하면서 북한 사회 내 사교육 경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

#### 사교육(개인지도) 경험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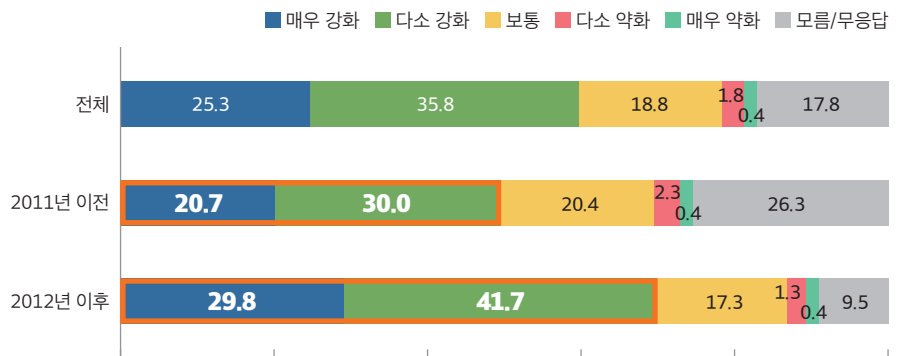
## 8

### 일상화된 사회 통제

#### 사회 감시 및 통제 강화, '거주지에서 감시' 51.3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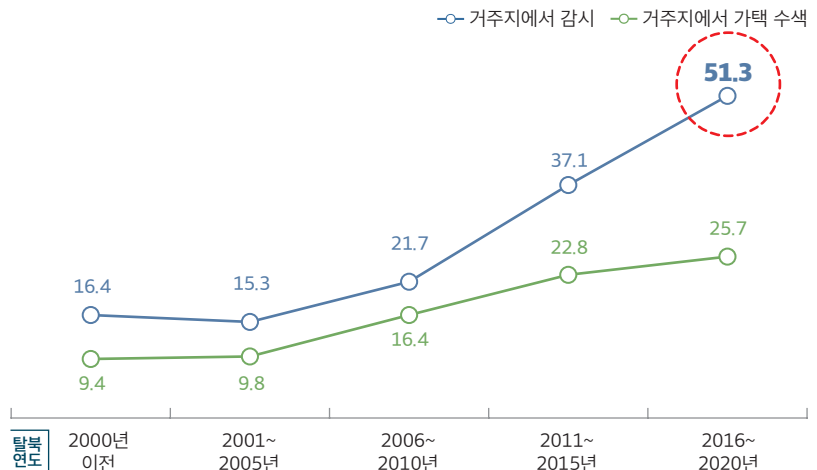
- 주민들의 사상 이완 방지를 위해 북한 당국은 사회 전반에 걸쳐 촘촘한 통제와 규율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.
- 김정은 집권 이후, 당국의 사회 감시 및 통제는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#### • 최근 3~4년간 사회 감시 및 통제 강화 정도(%)



- 거주지에서 감시를 받았거나, 가택 수색을 당한 경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

#### • 거주지에서 감시-가택 수색 경험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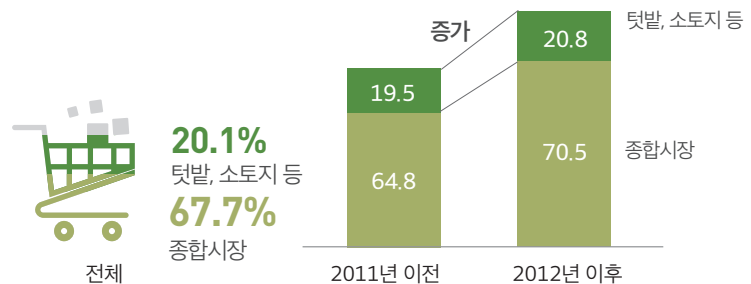
# 계획경제와 통제의 틈새에서 시장으로 향하는 주민들

①

## ‘내돈내산’ 생필품

### 식량(쌀·강냉이) 구매경로 1위 종합시장 70.5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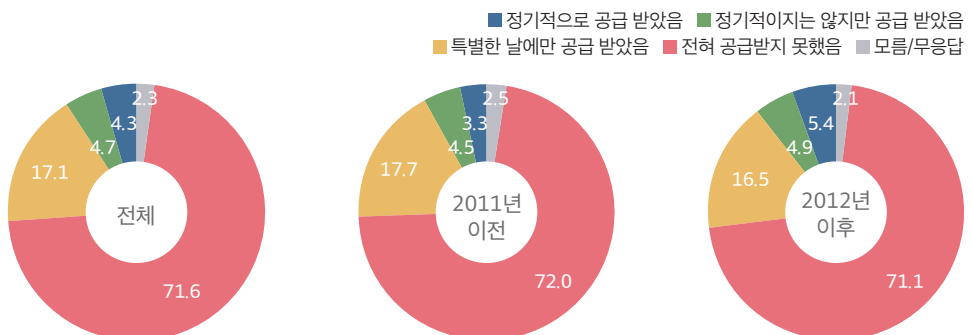
- 북한 당국의 배급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1일 3회 식사하는 비율(89.7%)이 증가했는데, 이는 주민들이 사경제 활동을 통해 자체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.
-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에서 식량을 조달하는 비율은 70.5%로 이전보다 더욱 증가하였습니다.
- **의식주 조달 방법의 다양화: 쌀과 강냉이의 경우(%)**



\* 텃밭 : 합법적인 사적 경작지  
소토지 : 개인이 임의로 일구어 경작하는 불법 경작지

- 생필품 역시 정기적으로 공급받는 비중은 여전히 5.4%에 불과하며,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### • 정기적인 생필품 배급 여부(%)



## 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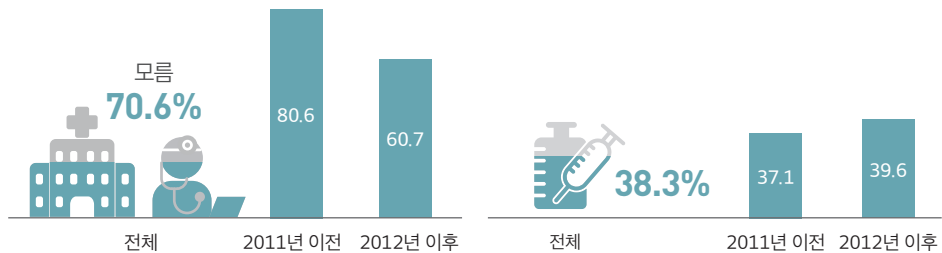
### 병원 대신 종합시장으로 가는 환자들

**병원 진료 경험 '없음' 39.6%, 약물 구입방법 종합시장 44.9%**

- 북한 당국이 선전해 온 무상치료는 사실상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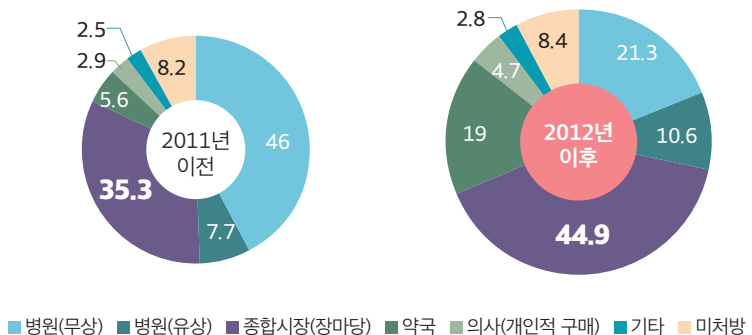
• 의사담당구역제 인지 여부(%)

• 병원 진료 경험 없음(%)



- 전체 응답자 중 38.3%가 병원 진료 경험이 없었으며, 무상치료제도 중 하나인 '의사담당구역제'를 인지조차 못한 응답자가 70.6%에 달하고 있습니다.
- 주민들은 대부분의 의약품을 종합시장 등에서 스스로 돈을 주고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• 약물 구입방법(% , 복수응답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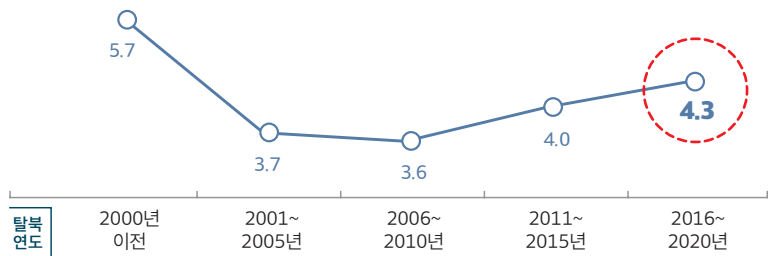
### ③

## 전기도 난방도 '자력갱생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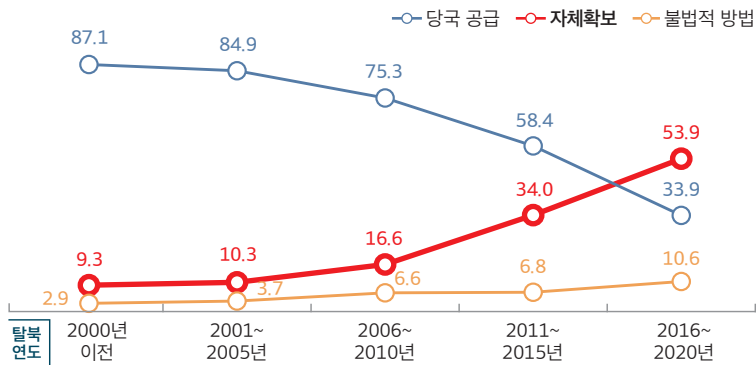
### 가정용 전력 공급 시간 4.3시간, 난방연료 1위 나무 69.7%

-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 상황에서 전력이 산업이나 공공 목적으로 우선 사용 되면서, 가정용 전력 공급은 훨씬 더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.
- 김정은 집권 이후, 최근 일반 가정용 전력 공급은 하루 약 4.3시간으로 2000년대 이전 수준인 5.7시간보다도 낮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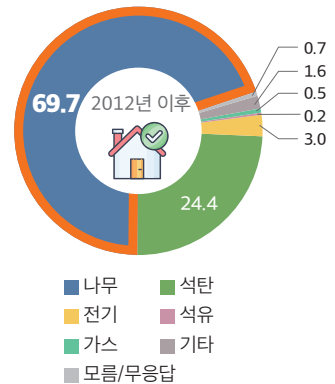
#### • 가정용 전력 공급 시간(시간)



#### • 가정용 전력 공급 방법(%)



#### • 거주 주택의 난방 연료(%)



- 주민들이 축전지, 태양전지 등을 활용해 자가발전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- 마찬가지로 가정용 난방 역시 주민들이 직접 나무를 구해와 해결하고 있는 비율이 69.7%로 전체 1위입니다.

## ④

### ‘썬비차’와 ‘사적 고용’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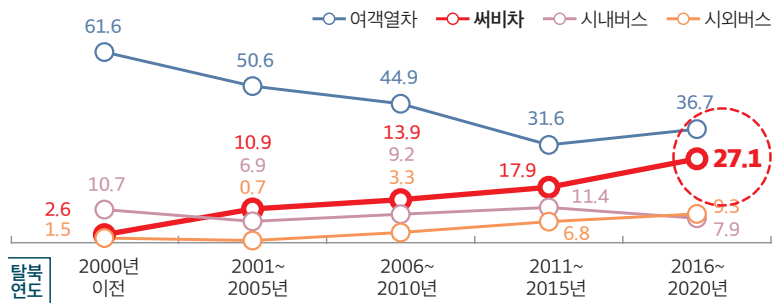
#### ‘썬비차’ 이용률

2000년 이전 2.6% → 2016~2020년 27.1%까지 증가

- 북한의 교통 인프라는 철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, 철도 이외에 마땅한 운송 수단은 부족합니다.
- 이 같은 열악한 공공 교통 인프라의 공백을 파고들어, 민간이 기관 및 기업소 차량을 불법 운용하거나 개인 차량을 기관 명의로 위장 등록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‘썬비차’가 확산되고 있습니다.

\* 돈을 받고 화물이나 여객을 수송해주는 차량

#### • 가까운 도시로 이동 시 이용한 교통 수단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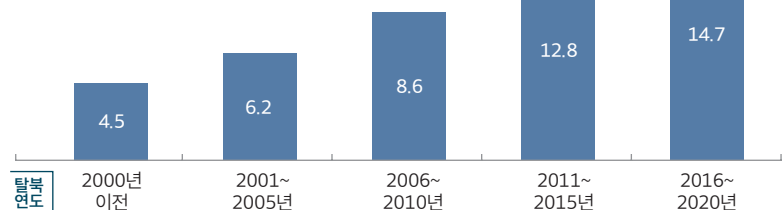


#### 김정은 집권 이후, ‘사적 고용’ 증가

-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경제 원칙에 반하는 개인 간 고용 관계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현금이나 현물로 대가를 받고 일해 주는 사적 고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.

#### • 사적 고용(샅벌이)을 해본 경험 유무(%)

■ 경험 있음(피고용)



## 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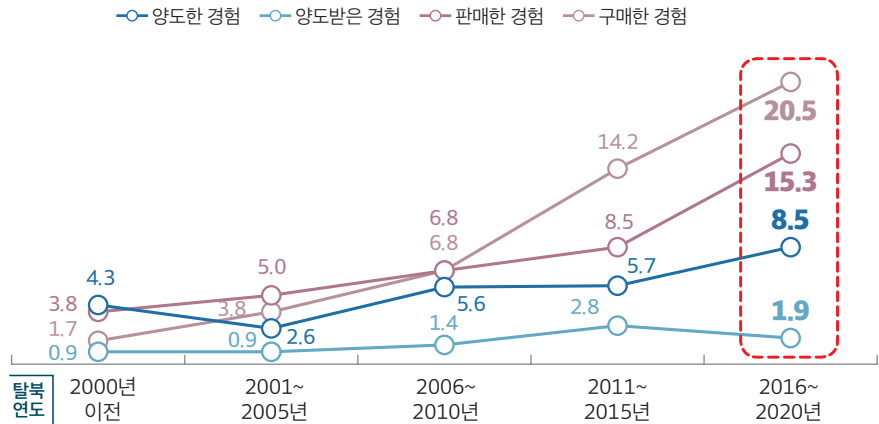
### 법망 피해 '내 집 마련'

#### 주택 양도·매매 '경험 있음' 46.2%까지 증가

- 북한에서 주택은 공식적으로 당국 소유이며, 법적으로 개인 간 주택 매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.
- 그러나 주택의 절대적인 공급 부족 속에서,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주민들이 주택을 사고파는 일\*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

\* 북한에서 주택 매매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아닌 '살림집 이용 허가증(입사증)'을 사고 파는 것

#### • 주택 양도·매매 경험 있음(복수응답, %)



- 김정은 집권 이후, 2016~2020년 주택 양도·매매 경험 응답의 총 합계는 46.2%로 집권 이전보다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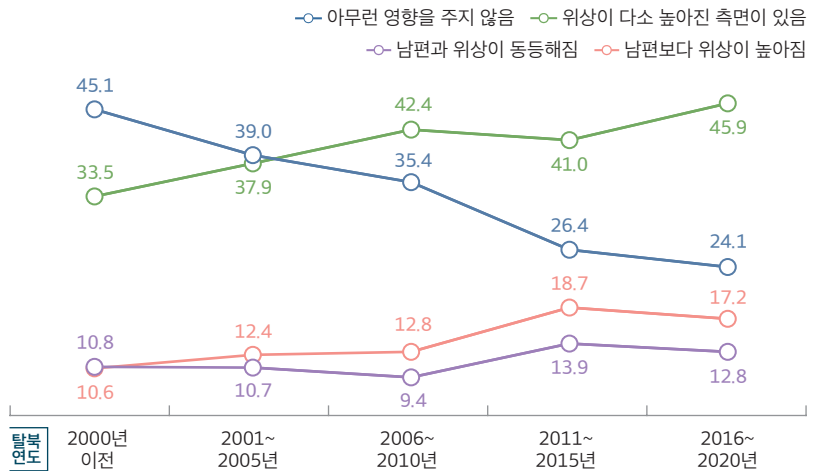
## ⑥

### 장마당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들

#### 여성의 시장 활동과 위상 변화

- 북한 내 시장화가 본격화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여성의 가정 내 위상이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.

#### • 여성의 시장 활동이 가정 내 여성 위상에 미친 변화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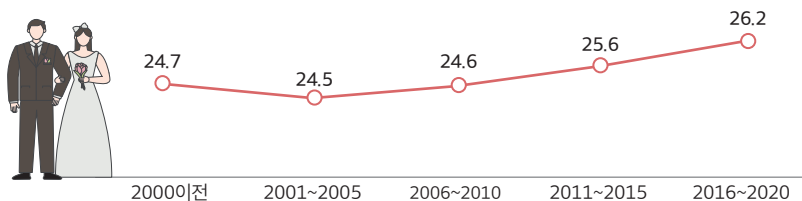


- 2016~2020년에 위상이 다소 높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45.9%, 남편과 동등해졌다는 응답률은 12.8%, 남편보다 더 높아졌다는 비율은 17.2%로 2000년 이전 보다 가정 내 여성의 위상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- 또한, 여성의 시장 활동은 가족 제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.

- 여성의 가정경제 기여도가 상승하면서 북한 여성들의 평균 결혼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.

#### • 결혼 당시 연령(세)



# 더디지만, 그래도 변화하는 주민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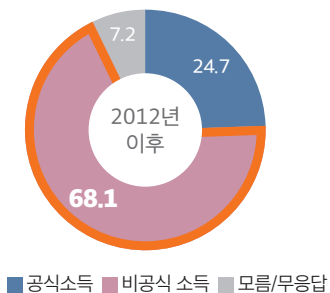
## ①

### 국영경제에서 사경제로

#### 주 소득원 '비공식 소득' 68.1%, 사경제 종사자 37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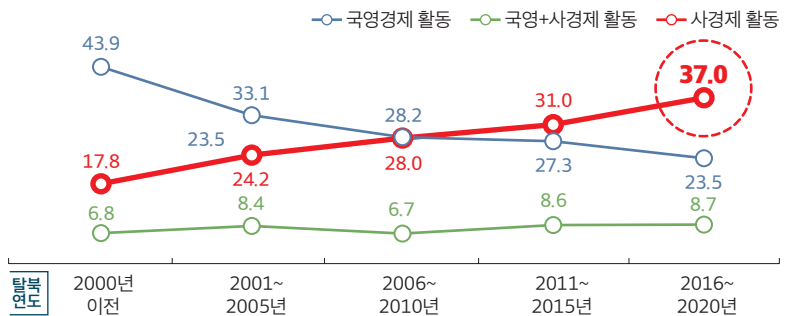
- 1990년대 중반 '고난의 행군'을 겪으며, 북한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시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고, 2000년대 급속한 시장화를 경험하였습니다.
- 공식경제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장사·소토지 경작·밀수 등 다양한 사경제 활동은 점차 북한 주민들의 중요한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

#### • 가족 내 주 소득원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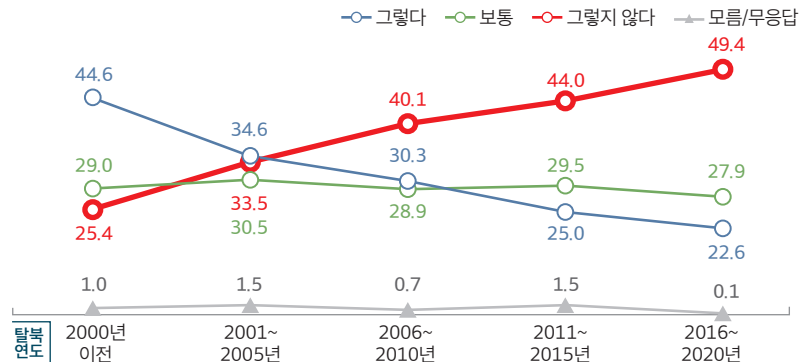
■ 공식소득 ■ 비공식 소득 ■ 모름/무응답

#### • 경제활동 종사자 비중(%)



- 북한 주민들은 '시장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'는 응답이 전체 90% 이상일 정도로 시장에 절대적인 의존을 보이며, 김정은 집권 이후 계획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

#### • 계획경제에 대한 선호\*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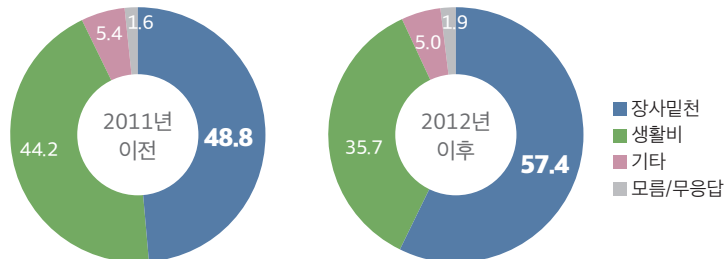


\* '북한 전체 차원에서 사회주의식 계획경제는 좋은 것이다'에 대한 응답 비율

## '장사밀천'을 위한 개인 간 금융거래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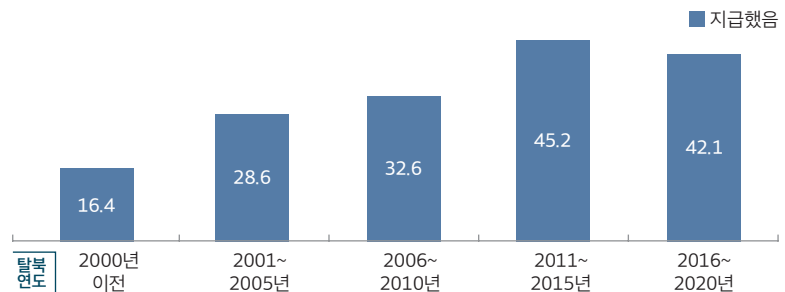
- 북한에서는 개인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, 현실에서는 상거래신용(외상거래), 자금대부, 송금 등 개인 간 사적 금융행위가 성행하는 추세입니다.
- 그간 돈을 빌리는 대상은 주로 가족 및 친지로 나타났는데, 김정은 집권 이후 '돈주'나 환전상 등에게 빌리는 비율이 더 높아졌습니다.

### • 돈을 빌린 이유(%)



- 김정은 집권 이후 장사밀천을 이유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57.4%에 이를 정도로 사경제 활동이 활발해진 것으로 보입니다.

### • 돈을 빌렸을 때 이자 지급 여부(%)



- 한편,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 간 금융거래 경험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은 북한에서 초보적인 형태이지만 비공식적으로 금융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시사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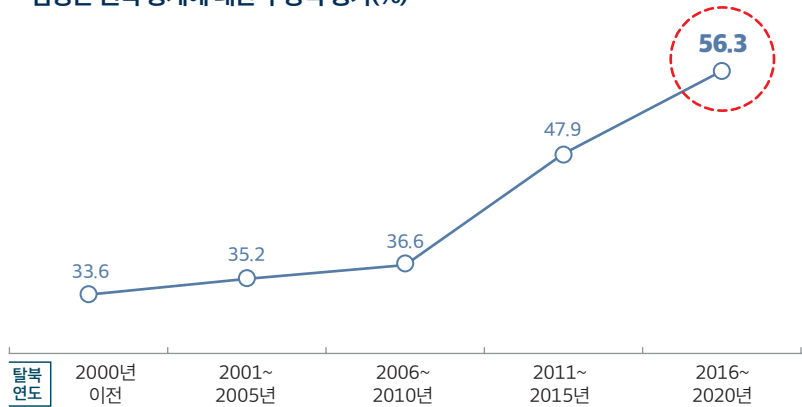
## ②

### '3대 세습', '백두혈통' 세습에 대한 차가운 시선

#### 김정은 권력승계 부정적 평가 56.3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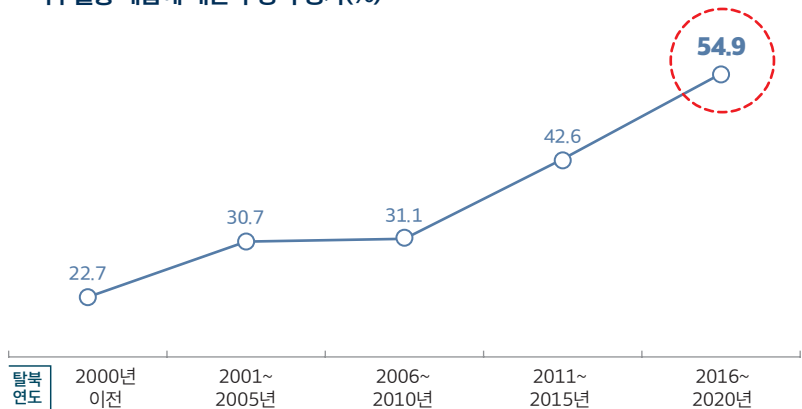
- 세습을 통한 김정은의 권력 승계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, 2016~2020년에는 부정적 응답이 56.3%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#### • 김정은 권력 승계에 대한 부정적 평가(%)



- 또한, 북한 주민들 사이에 '백두혈통'에 의한 세습에 반대하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으며,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

#### • 백두혈통 세습에 대한 부정적 평가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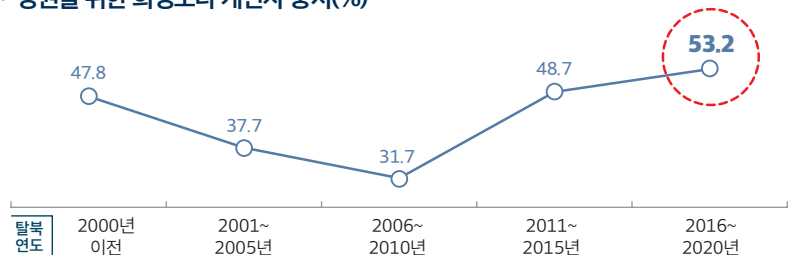


### ③

## 일상에 나타난 의식 변화들

### 개인주의 성향 증가, 집단주의 기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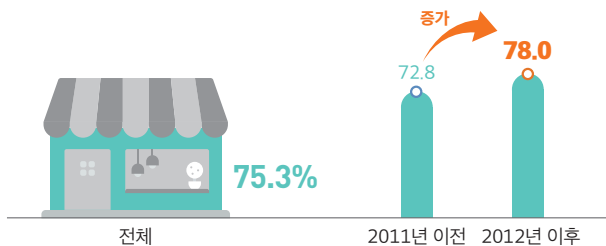
- 전체주의 북한에서도 주민들 사이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.
- 북한에서 개인의 일을 하는 것이 당과 체제의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.
- 정권을 위한 희생보다 개인사 중시(%)



### 시장 선호, 권력 중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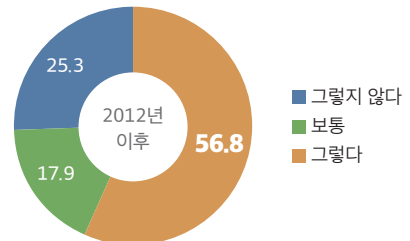
- 북한 주민들은 국영상점보다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#### • 시장이 더 좋다는 응답비율(%)



#### • 자본 대비 권력 선호 인식(%)

\* '돈을 많이 벌어도 권력만 못하다'에 대한 응답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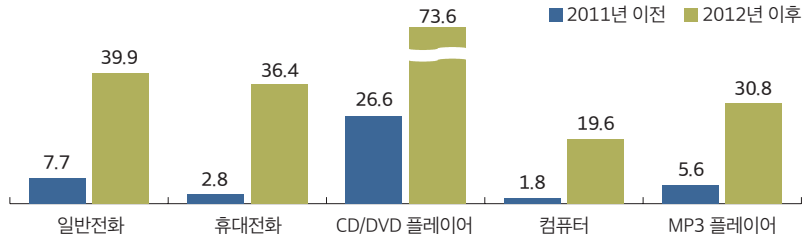
- 다만,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선호하면서도 자본보다는 권력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.
- 김정은 집권 이후, 전체 응답자 가운데 56.8%가 돈보다 권력이 더 중요했었다고 밝혔으며 권력보다 돈이 더 중요했었다는 응답률은 25.3%에 그쳤습니다.

## ④

### 거센 단속 속에서도 꾸준히 유통되는 외부정보의 힘

#### 휴대전화 보유율 36.4%, 인터넷 이용불가 98.4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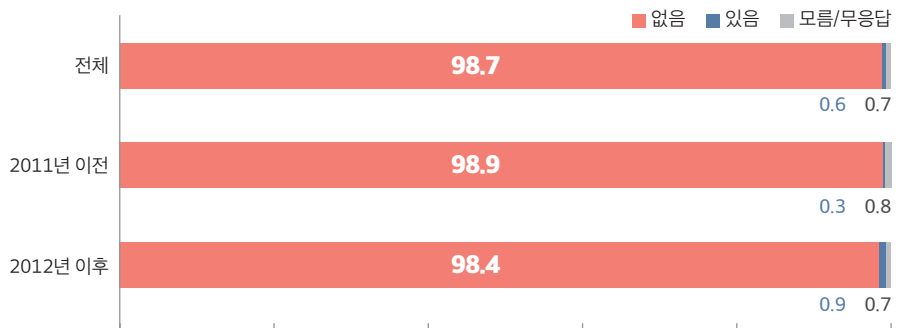
##### • 가정 내 정보기기의 보유 현황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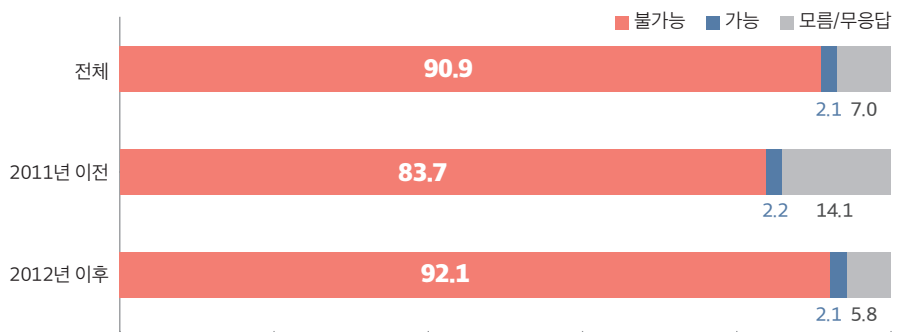
- 최근 북한 내 컴퓨터·휴대전화 등 정보기기가 확산되고 있지만, 이것이 정보 개방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.
- 북한은 전 지역에 인터넷이 아닌 인트라넷(폐쇄망)\*을 구축하여 전 세계에서 보기 힘든 폐쇄적인 정보통신망을 가지고 있습니다.

\* 정부·기업 등 보안을 위해 특정 조직 내부에서만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

##### • 인터넷 사용 경험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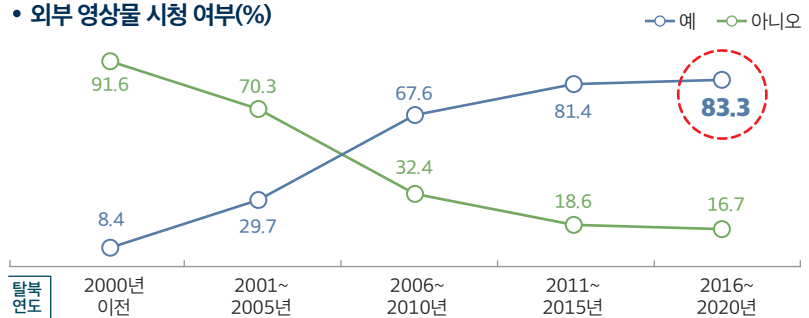
##### • 휴대전화 인터넷 가능 여부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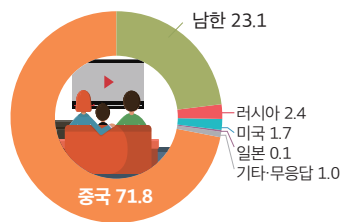
## 외부 영상물 시청 83.3%, 중국·남한 콘텐츠 1,2순위

- 최근 북한은 「반동사상문화배격법」(2020) 제정 등 외부정보 유입에 대한 통제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북한 주민들은 USB나 미디어 기기를 통해서 외부 영상물을 시청하고 있습니다.
- 조사 결과, 2016~2020년에 외부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응답률이 83.3%에 이를 정도로, 이러한 추세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

### • 외부 영상물 시청 여부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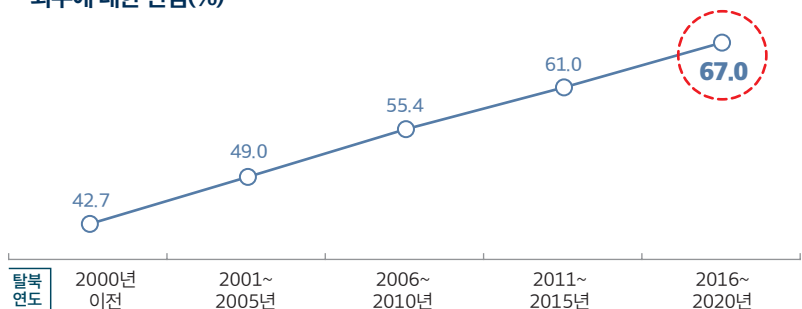


### • 주로 본 영상물 (영화/드라마)의 종류(%)



- 또한, 최근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67%에 이르는 등 북한 주민들의 외부에 대한 관심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### • 외부에 대한 관심(%)



더 알고 싶다면?

[https://unikorea.go.kr/nk\\_realities/](https://unikorea.go.kr/nk_realities/)

